

# 시민참여단 250명 선정...학습·토론후 내달 9~10일 결론

(26일)

## 1차 여론조사 오늘 마감...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향후 일정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에 앞서 진행되는 시민 여론조사가 23일 마무리 되는 등 도시철도 공론화 작업이 최종 결론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22일 오후 4시 현재, 목표치인 2500여명을 훨씬 넘는 시민이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등 지역민의 관심도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 마무리 이후 구성될 시민참여단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속의자료집 제출과 '이러닝(e-Learning)' 속의 영상'이 준비되는 등 공론화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작된 찬반 여론조사는 23일 마무리될 예정이며, 시민 참여율이 높아 성별·연령별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위원회 최영태 위원장은 "애초 목표였던 2500명보다 많은 시민의 답변을 받아냈고, 연령과 성별 안배를 맞춰 여론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께 시민참여단

속의자료집·이러닝 속의 영상

시민참여단 학습 자료로 제공

검증위원회·자문위원회도 구성

250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 결과는 공론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표하지 않는다. 시민참여단은 여론조사 찬반 비율과 성별·연령별 비율, 1박 2일 집중토론 참석 여부 등을 따져 무작위 추출·선별하게 된다.

또 오는 24일 찬반 양측의 의견과 설명 등을 담은 자료집을 제출해 시민참여단에 공개하게 된다. 이르면 오는 26일께 선정되는 시민참여단이 오프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속의자료집에 이어 온라인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러닝 속의 영상도 조만간 마련된다.

이러닝 속의 영상 1강은 공론화 개념과 절차, 2강은 광주시 교통현황(도시철도

1·2호선 현황), 3강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양측의 주장을 담는다.

공론화위원회는 26일 제7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 종합토론회 세부 프로그램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영태 공론화위원장은 "시민참여단 250명이 집중적으로 속의·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온라인에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속의 영상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월 9~10일 시민참여단의 투표 결과를 광주시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는 또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에 이어 검증위원회와 자문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검증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명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회는 교통분야를 비롯해 도시계획, 법률, 재정분야로 나눠 5명으로 구성한다.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는 도시철도 '건설 찬·반' 양측 3명씩 6명과 공론화위원회 소통분과 2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공론화 시민참여단 구성을 위한 시민 여론조사가 23일 마무리되는 등 공론화 작업이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광주 도시철도 1호선 객실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대통령과 친인척·청와대 인사 이름대고 돈 요구하면 모조건 사기...신고해 달라”

문대통령 특별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또는 청와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께 소상히 알리라고” 특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언급한 뒤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고 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대변인은 “피해자들은 많게는 4억원을 뜯기는 등 거액을 사기당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제일 이른 발생 시점이 작년 8월 정도로 그때만 해도 한두 건이었었는데 누적되면서 문제 심각성을 감안해 대통령께서 특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이런 사례에 전혀 개입된 바 없으며, 향후에도 그 어떤 위법사례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풍추상의 자세로 엄정한 근무 기강을 유지할 것”이라며 “만일 불법행위 가담이 조금이라도 확인되는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징계 및 수사 의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의 중요직책에 있는 사람이 사기행



각과 관련돼 있다면 이는 국정 수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태”라며 “국민께서는 이런 사례를 접하는 경우 청와대 또는 검찰·경찰 등 관련 기관에 즉각 신고해달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연내에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정대로 연내에 이뤄질지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미정상회담 스케줄에 따라 김 위원장의 답방도 늦춰질 수 있으나 이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고, 김 위원장 답방도 예정대로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 민주당 지도부 총출동 ‘광주형 일자리’ 성공 적극 지원

빛그린산단 공장설립 현장 찾아 광주세계수영대회 등 협조 요청

“광주형 일자리”로 추진되는 현대자동차 완성차 광주공장 설립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협조를 찾는 등 정치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2일 민주당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4일 광주시청에서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현장 최고위원회를 겸한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이해찬 당 대표를 비롯해 홍영표 원내대표, 박주만·

박광온·설총환·김해영·이형석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식 대변인, 김성환 당 대표 비서실장, 소병훈 조직사무부총장, 조정식 예정위 간사, 김두관 참정부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총출동한다. 또 최영호, 강기정, 이용빈 등 광주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들도 참석해 ‘광주의 목소리’를 전달한다.

특히 이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현대차 광주공장 건립 예정지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아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1일 ‘민주당 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도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이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이날 건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회적 협약을 통해 지역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모델인 광주형 일자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창출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적극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또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 지원액 295억원 추가 반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시효 연장 등도 건의한다. 또 광주시는 광주·전남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광주 근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원을 늘려줄 것 등도 추가 건의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경전선 전철화 145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문화재단 콘텐츠 개발 194억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30억원 ▲광주공동브랜드 활성화 지원 11억원 ▲국립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4억원 등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도 요청한다. /오광록 기자 kroh@

## 한전 “한전공대 입지 지자체 합의추천 여전히 유효” 전문가 선정 방식도 함께 추진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입지 선정에 대해 ‘지자체의 합의 추천’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공대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의 합의를 고려하겠다는 의미다. ‘부지 선정문제’는 한전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성명발표가 있었지만 여전히 합의추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22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전공대설립단은 현재 한전공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

에 착수한 상태다. 올해 중 작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목표로 전문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한전은 용역사인 ‘A.T.Kearney’에 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합의해 입지를 추천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지역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1일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공동성명을 내고 “한전공대 부지는 일체의 정치적·지역적 고려 없이 최선의 부지를 한전이 선정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전 관계자는 “중간 용역보고회에서도 밝혔듯 지자체 합의로 부지조건에 맞는 입지를 추천하는 방식과 전문가가 전문·객관

성을 확보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지자체의 합의추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올해 안에 부지선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 중간 용역보고회에서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부지 120만㎡ 규모의 한전공대 설립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하나팩**

### 여행은 편안하게, 무안출발 해외여행

☘ 광주일보 고객 예약자 대상 혜택 |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1매 증정(대표자1명) ※출발료 제공/예약시광주일보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중국**

**상해**

**299,000원~**

상해/항주/주가가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상해야경#동양의 베니스 #주가가 뱃놀이

**상해/장가계**

**1,290,000원~**

상해/장가계/원가계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요일 3박 4일  
토요일 4박 5일  
#천하제일명산 #일식이조여행

**대만/동남아**

**대만**

**614,200원~**

대만/지우펀/야류 3일,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목, 금, 일요일 3박 4일  
수요일 2박 3일  
#먹거리,불거리가득

**방콕**

**664,900원~**

방콕/파타야 5일,6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수, 목요일 3박 5일  
토, 일요일 4박 6일  
#코끼리트레킹 #발사지 #다이내믹 여행지

**일본**

**다낭**

**899,000원~**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40-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토요일 3박 4일  
화요일 4박 5일  
#4성급호텔 #투본강투어 #후에전통가

**기타큐슈**

**490,000원~**

기타큐슈/유후인/벵부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00엔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매일출발 2박4일  
#지옥은천 #캐널시티

**오사카**

**970,000원~**

오사카/교토/나라 4일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없음  
선택경비 있음  
운항일 월, 목, 일요일 3박 4일  
#달관관광일정 #다양한 특식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 단체맞춤여행 인증제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총장점 062)228-1199**

H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